

“믿을 수 있나”...서방, 러 협상안 여전히 불신

전문가들 “러시아군 병력 재정비 위한 시간벌기·기만전술 가능성” 미국·영국·프랑스 등 “러시아의 말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군이 군사활동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기만전술일 수 있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교착상태에 빠진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와 시간 벌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평화 협상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재공세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치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결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전략연구재단(FRS)의 국방 분야 애널리스트 프랑수아 하이스버그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야만 하는 만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상의 외견상 진전에 이어진 군사활동 축소는 러시아가 (병력을) 강화·재집결하고 병참상 접근이 어려워 탄약과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독교나 러시아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

이 해 왔다. 러시아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킬 때도 한사코 침공 의도를 부인하며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하면서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평화 추구에 관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지한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의 말과 러시아의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그는 키이우 등지에서 군사활동을 줄이겠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도 “(아직) 러시아가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크렘린궁의 발표에 속아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키이우에서 러시아군 병력 일부가 이동한 데 대해선 “이는 실제 철수가 아닌 재배치”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우리는 푸틴 정권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믹 스미스 영국 국방장관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세를 병력을 돌리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침묵 깬 윌 스미스 부인 “이제는 힐링할 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미국 할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의 부인 제이다 핀켓 스미스가 2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30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는 힐링할 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화해하자는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앞서 공개석상에서 폭력을 행사한 일이나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윌 스미스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탈모증으로 식발한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며 농담조로 이야기한 코미디언 크리스록의 뺨을 때렸다.

이 일로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고,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도 스미스의 행동을 비판하고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스미스는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선을 넘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미스의 사과에 대해 록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코미디 공연 입장권 예매자가 폭증하고 입장권 가격이 9배나 오르는 등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마을인 브로바리에서 여섯 살 딸을 대동한 30대 여성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던 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멸종위기 수마트라코뿔소 8차례 유산 끝 탄생 인도네시아 전국이 ‘들쭉’

전 세계에 80마리도 안 남은 심각한 멸종위기종 수마트라코뿔소가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에서 태어나 화제다. 특히 이미 코뿔소가 8차례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새끼’라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섬의 웨이 캄바스 국립공원에서 지난 24일 수마트라코뿔소 새끼가 태어났다. 수마트라코뿔소 암컷 새끼는 번식 프로그램을 위해 야생에서 국립공원으로 데려온 ‘로사’라는 이름의 암컷 코뿔소가 2005년부터 8차례나 유산한 끝에 낳았다고 이들 매체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웨이 캄바스 국립공원의 수마트라코뿔소는 총 8마리로 늘어났다. 수마트라코뿔소는 코뿔소 중 덩치가 가장 작고 아시아 코뿔소 중 유일하게 뿔이 두 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인 수마트라코뿔소는 한때 동남아 거의 전역에 서식했다.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에 80마리도 안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르네오섬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3개국 영토로 나뉘어 있다. 말레이시아 영토에 딱 한 마리만 남아있던 수마트라코뿔소가 2019년 11월 24일 자궁중양으로 폐사한 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자국 내 수마트라코뿔소 번식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상하이 봉쇄로 중국 올해 성장률 0.6%p ↓ 전망

‘제로 코로나’ 부정적 영향 커져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가 순환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는 인구가 2500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년간 중국

정부의 단호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당국이 이런 엄격한 제한 조치를 고수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 깎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중문대 연구진은 좀 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연구진은 상하이 가 전면 봉쇄되면 봉쇄 기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

산(GDP)이 4% 감소하고, 상하이와 베이징, 톈진, 충칭 등 4대 도시가 함께 봉쇄되면 그 감소 규모가 12%로 커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 GDP의 20%를 담당하는 도시들이 선별적 봉쇄에 들어가면 중국 월간 GDP의 3.1%에 해당하는 463억달러(약 56조 7000억원)의 손실이 매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상하이 봉쇄되기 전에 이미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 조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다수 IB들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중국 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UBS는 지난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ANZ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가 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하이의 봉쇄조치가 5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야기한 혼란이 지난해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중국 내 지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td>광주</td><td>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td></tr> <tr><td>광주</td><td>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td></tr> <tr><td>광주</td><td>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td></tr> <tr><td>광주</td><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td></tr> <tr><td>광주</td><td>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td></tr> <tr><td>광주</td><td>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td></tr> <tr><td>광주</td><td>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td></tr> <tr><td>전남</td><td>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td></tr> <tr><td>전남</td><td>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td></tr> <tr><td>전남</td><td>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td></tr> <tr><td>전남</td><td>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td></tr> <tr><td>시외</td><td>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td></tr> <tr><td>시외</td><td>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td></tr> </table>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주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주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광주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주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주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전남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전남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시외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주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주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광주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주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주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전남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전남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시외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																												